

#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품 소장사

정수형

## I. 서론

## II. 보스턴미술관 역사: 건립부터 한국실 설립까지

## III. 한국미술품 소장사

- 소장품 내역
- 주요 수장가 및 기증품
- 주요 기금 구입품
- 기타 소장품

## IV. 결론

---

보스턴미술관 아시아미술부 한국미술담당연구원

주요 논저:

Jane Portal, Suhjung Kim, and Hee Jung Lee, *MFA Highlights: Arts of Korea*,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12)

#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품 소장사

정수형

## I. 서론

국립문화재연구소(당시 소장 김영원)는 2012년 5월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를 149,126점으로 밝혔다. 총 20여 개국 550여 개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을 집계한 결과로, 2005년 문화재청 집계 74,443점 대비 두 배가 넘게 늘었다. 이는 한국문화재의 유출이 대부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일어난 사실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과제는 이들 문화재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활용하는 일이 될 텐데, 특정 작품의 출처,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유출입하게 됐는지를 조사·연구하는 소장사연구는 작품의 진위 여부 및 거래의 적법성까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소재 문화재 연구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연구라 할 수 있다.<sup>1</sup> 미국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소장사연구는 통상 1970년 이전에 소장하게 된 물품에 한해 실시하며 출토 시기 및 장소, 최초 발견자를 포함한 소장자 내역 및 거래 경로 등이 밝혀지면 일단락된다.<sup>2</sup>

이 글은 미국 보스턴미술관에서 2010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실시한 한국미술품 소장사 연구 내용의 일부를 추려 기록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당시 2012년 11월 완성 예정이었던 한국실 개편 업무를 앞두고 한국미술품의 정확한 수량, 보관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sup>3</sup> 현재

1 필자는 영문 “Provenance Research”를 소장사연구라 부르고자 한다. 영어 ‘provenance’는 불어 ‘provenir’가 그 어원으로 ‘...에서 유래하다, 나오다, 생기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고고학 용어로는 출토지·발견지를 일컫는 ‘provenience’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소장사연구의 정의 및 의의, 목적, 방법론에 대한 상세 사항은 IFAR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Art Research) 웹사이트 <[http://www.ifar.org/provenance\\_guide.php](http://www.ifar.org/provenance_guide.php)>, 9 Aug 2013.

2 분기점인 1970년은 유네스코가 파리에서 열린 제16차 총회에서 문화유산으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 국가 간 반입 및 반출, 거래를 금하는 협약을 채택한 해다. 우리나라 및 미국을 포함해 총 122개국이 참가했으며 제정된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또는 “1970 협약”이라 부른다. 이 협약은 다시 1995년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협약”이 제정되면서 법적 강제력 및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3 한국미술품 소장 경로와 관련된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고 열람·발췌·기록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미술부 부장 제인 포털

까지 파악된 내용은 보스턴미술관 유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장가 및 기증자, 미술상 정도로 극히 기초적 내용에 불과하다.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연구 과제 및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 II. 보스턴미술관 약사: 건립부터 한국실 설립까지

‘미국의 아테네’라 불리는 보스턴은 『주홍글씨』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을 비롯해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 1807-1882),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 등 세계적 문호 및 학자, 지식인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이들 보스턴 지식층 대다수는 직조산업으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여행을 통해 유럽의 선진 문물 및 미술관을 경험하고 몇몇은 일종의 기념품으로 유럽의 미술작품을 구입해오고는 했다. 이런 이유로 보스턴에는 1760년부터 하바드대학(Harvard College) 내에 ‘미술관실(Museum Room)’이라 부르는 곳이 있었고, 1807년 설립된 보스턴어세니움(Boston Athenaeum)에서는 소규모나마 조각전시실(Sculpture Gallery)과 회화작품 전시실인 어세니움갤러리(Athenaeum Gallery) 등이 있어 미술작품들을 보관·전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전시시설들은 파리 루브르미술관 등 유럽 미술관들에 비하면 극히 보잘 것 없는 수준이어서 보스턴 신흥 부호 및 지식인 사이에서는 그들의 자존심을 세울 만한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 즈음 찰스 캘러한 퍼킨스(Charles Callahan Perkins, 1823-1886)를 주축으로 한 미국사회과학협회(American Social Science Association)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품의 교육적 가치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스턴 시는 1870년 2월 보스턴미술관 건립을 입법화하는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sup>4</sup>

보스턴 연안 해안을 간척해 만든 백베이(Back Bay, 현 Copley Square) 지역을 미술관 부지로 선정해

---

(Jane Portal), 프로비넌스 큐레이터 빅토리아 리드(Victoria Reed), 유물등록부 큐레이터 캐서린 오하일리(Catherine O'Reilly)의 지도와 도움을 받았다. 소장사연구의 국문 정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조인수교수의 격려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4 조례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body corporate by the name of the Trustees of the Museum of Fine Arts for the purpose of erecting a Museum for the preservation and exhibition of works of art of making, maintaining, and exhibiting collections of such works, and of affording instruction in the Fine Arts.” 보스턴 미술관 건립시기 및 초창기 역사에 관한 상세 내용은 Charles G. Loring, “Twenty-Five Years of the Museum Growth: A Historical Sketch,” *Annual Report*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01), pp. 13-23 참조.

영국에서 수입한 테라코타 벽돌로 건물을 지어 187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일반에 공개했는데, 개관 당시 전시품은 보스턴 어세니움에서 소장하고 있던 회화 및 조각 작품, 하바드대학 소장 판화 작품, 매사추세츠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소장 건축 석고물, 보스턴 시 소장 초상화들이었으며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부과했다. 이듬해인 1877년에는 건물 지하층에 미술학교(School of Drawing and Painting)를 열고 1879년에는 도서관을 개관해 체계적인 미술교육의 기반도 마련했다.<sup>5</sup>

초창기 보스턴미술관의 임직원 수는 미미했고 미술품 구입도 직조산업에 기반을 둔 보스턴 유지들의 특성을 반영해 장식미술과 직물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한 재력가들의 아낌없는 기금, 개인 수집가들의 적극적인 작품 대여 및 기증, 하바드대학과의 공동 발굴사업, 미술관 큐레이터 및 관련 학자들의 체계적 수집활동 등이 이어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으로도 크게 향상되었다.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는 도슨트(docent) 프로그램을 최초로 선보이고(1907), 소장품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1909년 현재 위치인 펜웨이(Fenway) 지역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할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6개 부서를 지닌 백과사전적 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sup>6</sup>

중국 및 일본미술 부서는 전적으로 20세기를 전후해 다양한 목적으로 일본 및 중국을 여행하게 된 일련의 동양미술 애호가들의 열정에 힘입은 바 크다. 한 생물학자의 대대적인 일본 토기 수집을 시작으로 중국미술, 인도 및 동남아시아미술, 한국 도자, 일본 판화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보스턴미술관 동양미술소장품은 가히 세계 최고라 자평할 만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국미술품의 경우, 수집 초창기였던 19세기 말에는 봄처럼 일어난 중국 및 일본미술품 수집 과정에서 필연적이나 부수적 산물로서 소장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sup>7</sup> 예외라면, 미국 내 최초 한국미술품 수집가 중의 하나인 조셉 라이터(Joseph Leiter, 1868-1932)가 있다.<sup>8</sup> 그는 일찍부터 유럽을 드나들며 그곳 미술시장에 나온 고려청자를 수집했는데, 이 중 일부를 후에 역시 유럽을 돌며 청자수집에 관심을 보인 찰스 베인 호이트(Charles Bain Hoyt, 1889-1949) 및 여러 수집가들이 구매해 소장하다 보스턴미

5 현 보스턴미술관학교(SMFA: School of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6 고전미술(Classical Art, 1877), 판화(Prints, 1887), 이집트미술(Egyptian Art, 1902), 중국 및 일본미술(Chinese and Japanese Art, 1903), 사진(photographs, 1904) 및 서구미술(Western Art, 1906).

7 예를 들어,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Edward Sylvester Morse)가 수집한 한국 토기는 그가 1901년 펴낸 무려 380여 쪽에 달하는 도록 『일본 토기 도록(Catalogue of Japanese Pottery)』에 단지 9쪽에 걸쳐 기록될 만큼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크 게이 매컴버(Frank Gair Macomber) 소장 한국 토기는 1909년 펴낸 76쪽 전시 도록 『매컴버 중국 토기 수집품 도록(Catalogue of the Macomber Collection of Chinese Pottery)』에 약 7쪽에 걸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8 시카고 기반 부호이자 사업가로서 초창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Chicago Art Institute)를 이끈 레비 지글러 라이터(Levi Ziegler Leiter, 1834-1904)의 독자다. 하바드대학(1891 졸업) 출신으로 한때 미국 곡물시장을 장악한 대부호였으나 1898년 갑작스런 시장붕괴로 당시 시세로 천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며 재계에서 은퇴한 후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다.

술관에 유증함으로써 보스턴미술관 고려청자 소장품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sup>9</sup> 한편, 로버트 트리트 페인(Robert Treat Paine, 1900-1965)은 1956년, 당시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극동미술부 큐레이터였던 앨런 프리스트(Alan Priest, 1898-1969)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국립중앙박물관 초대박물관장인 고 김재원 박사(1909-1990)와 미국 순회전시 〈Masterpieces of Korean Art〉에 소개할 작품을 선정했다.<sup>10</sup> 보스턴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내 7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순회전시는 금관 등의 장식품 187점을 비롯, 선사시대 토기, 청동 및 금동상, 고려청자, 나아가 조선시대 회화까지를 소개해 한국미술을 미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평가되고 있다.

보스턴미술관 내 한국실은 네덜란드 국적의 얀 폰테인(Jan Fontein)이 관장대리로 재직하던 1982년, 한미수교100주년기념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대략 111.5m<sup>2</sup>(1200 sq. ft) 규모의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폰테인은 한국미술을 중국이나 일본미술과는 다른 독자적 분야로 바라 본 미술사학자로 1968년부터 보스턴미술관에 재직하며(1987년부터 관장)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유물 150여 점을 일괄 구입해 한국미술 소장품의 폭을 또 한 차례 넓힌 인물이다. 1980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이 주관한 한국미술 5000년 역사를 소개하는 순회전시 〈한국미술오천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실은 현재 제인 포털(Jane Portal) 아시아미술부서장이 책임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1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불교회화, 조선 후기 병풍 및 현대 도자를 포함, 대략 140여 점을 교체 형식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도 1 . 관련 부대행사로 조선시대 불교회화 십여 점을 소



도 1. 2012년 11월 재개관한 보스턴미술관 한국실 전경.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9 *Selected Masterpieces of Asian Art*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92), p. 122. 그러나 현재 라이터가 전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청자는 호잇이 기증한 〈청자압형연적〉(50.964)과 존 돌리버 맥도날드(John Dolliver MacDonald) 부부가 1959년 기증한 〈청자과형병〉(59.308) 뿐이다.

10 로버트 트리트 페인은 하버드대학(1928 졸업) 출신으로 일본에 5년간 체류한 경험이 있다. 보스턴미술관에서는 1932년부터 근무해 1945년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1963년부터 1965년까지는 도미타 고지로(1890-1976)의 뒤를 이어 큐레이터로 일했다. 일본 판화 수집가로도 유명하다.

개하는 전시, 〈Divine Depictions: Korean Buddhist Paintings〉도 개최되었다.

### III. 한국미술품 소장사

#### 1. 소장품 내역

보스톤미술관 소장 한국미술품은 2013년 7월 현재 총 1,045점으로 집계된다.<sup>11</sup> 대부분 개인수집가의 소장품을 기증받거나 기금을 통한 미술관 관계자의 구매를 통해 취득하게 된 물품들이다(표 1). 도자기로 분류된 품목이 약 45%를 차지하며 보석 장신구 133점, 서화가 122점으로 그 뒤를 잇는다(표 2). 시대별로는 고려시대가 355점으로 가장 많고 조선시대, 삼국시대, 근대 및 현대, 선사시대 순이다(표 3). 소장시기별로는 1950년이 호잇이 일괄 유증한 242점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유입된 시기로 기록되고 있으며 고대 유물 및 미술품 116점을 일괄구입한 1977년이 그 다음으로 기록되고 있다(표 4). 기

표 1. 유입경로별

경로	수량
기금 구입	430
유증	273
기증	265
복합 기증 및 기금 구입	10
미구분	67
계	1,045

표 2. 종류별

종류	수량
도자기	469
보석 및 장신구(유리제 포함)	133
회화 및 서예	122
판화 및 탁본, 엽서	98
사진	61
금속(은제품 및 제례용 도구 포함)	60
도구 및 기구(식기 포함)	34
조각	27
칠기	13
직물(의류 포함)	11
무기	8
가구	1
기타 미정	8
계	1,045

<sup>11</sup> 소장품으로 등록이 완료된 작품만을 집계한 수며 국적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한국미술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작품 및 등록번호 'RES'로 시작되는 예비용 미술품을 포함한다. 이 중, 중국에서 수집한 유물 11점과 일본에서 수집되거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유물 16점은 각각 중국미술 및 일본미술 부서에 속해 있으며 직물 및 의류 등 10점은 직물부서에 속해 있다. 미등록된 한국미술품 및 2013년 기금을 통해 구입한 사진 1점(2013.876)은 집계되지 않았다.

중이나 기부금을 통해 한국미술소장품 형성에 20점 이상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개인, 기관 및 기금은 총 9건으로 합산 843점이며 전체 소장품의 약 81%를 차지한다(표 5). 나머지는 16점 1건, 12점 1건, 11점 2건, 9점 1건, 8점 3건, 6점 3건, 5점 2건, 4점 3건, 3점 6건, 2점 12건, 1점 27건, 기타 미정 6점으로 집계된다.

표 3. 시대별

시대	수량
선사시대	12
삼국시대	215
통일신라시대	44
고려시대	355
조선시대	305
근대(1897~1945)	47
현대(1945년 이후)	17
기타/미정	50
계	1,045

표 4. 소장시기별

소장시기	수량
1890년대	103
1900년대	19
1910년대	114
1920년대	23
1930년대	34
1940년대	10
1950년대	299
1960년대	130
1970년대	143
1980년대	28
1990년대	21
2000년대	110
2010년대	11
계	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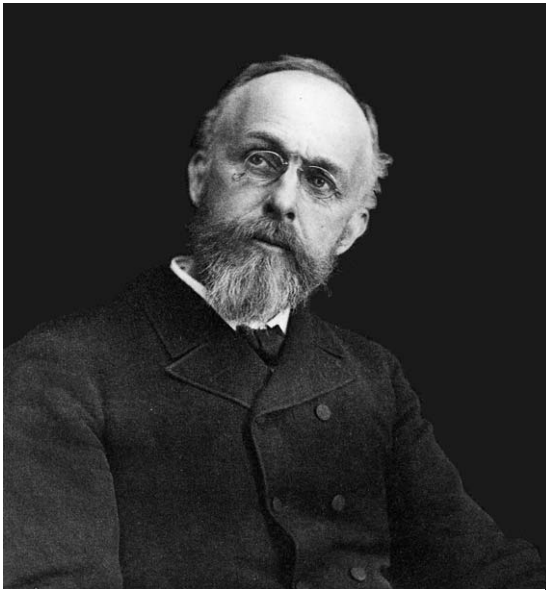
표 5. 기증자 및 기금별(20점 이상)

기증자 및 기금명	수량
찰스 베인 호잇(유증, 기증, 기금 구입 및 복합 기증/기금 구입)	306
키스 믹라우드(유증 및 기증/기금 구입)	137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기증 및 관련 기증/기금 구입)	120
아시아 큐레이터 기금	91
보스턴미술관 도서관 기증	61
윌리엄 스티지스 비겔로 및 덴만 왈도 로스(유증 및 기증)	52
무명 기증	32
특별 한국 토기 기금	26
월드 및 페놀로사-월드컬렉션(유증, 기증 및 교환)	22
계	847

## 2. 주요 수집가 및 기증품<sup>12</sup>

### 1)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 수집품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Edward Sylvester Morse, 1838-1925)는 보스턴미술관 소장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도2</sup>. 그가 일본 토기를 수집하며 보여준 과학자적 관찰력, 진지한 태도, 상세한 기록은 당대 다른 수집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면모다. 매사추세츠 세일럼(Salem)<sup>13</sup> 출신으로, 일본 토기 수집은 피바디과학학교(Peabody Academy of Science)<sup>14</sup> 생물학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본 해안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의 일종인 완족류를 관찰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



도 2.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1877), 우연히 오오모리(大森) 지역 조개무지에서 즐문토기 파편들을 발견하면서 시작한다.<sup>15</sup> 이후, 모스는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당시 신설된 도쿄대학(1877년 설립)의 교수, 피바디과학학교장, 보스턴미술관 일본 토기 관리자 등 여러 직책과 직무로 일하며 자신의 관찰, 조사, 연구 내용을 수시로 발표·발간해 동분야 수집가, 학자, 탐험가들에게 영감의 대상으로서 큰 존경을 받았다. 후술할 비겔로, 페놀로사, 오카쿠라, 웰드, 로스 등 보스턴미술관 동양미술소장품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들은 모두 모스를 중심으로 모여 친분을 쌓은 일종의 동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6</sup> 모스 주변에는 한국과 관

12 서술상 편의를 위해 유증 및 기증품, 기금 구입품, 미술상 거래품 순으로 나눈 후, 수집가가 수집품의 증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보스턴미술관과 연을 맺게 된 순으로 기술했다. 분류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한국미술소장품 형성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임의로 구분해 기술했다. 1970년 이후 소장품에 대해서는 기타로 구분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13 세일럼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미국 대외무역(중국 및 동인도제도)의 중심지 역할을 한 항구도시이다. 19세기 후반 뉴욕 및 보스턴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쇠했다.

14 1799년 설립된 동인도해양회(East India Marine Society)가 전신으로 1867년 설립됐다. 1915년 세일럼피바디미술관(Peabody Museum of Salem)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1992년 에섹스학교(Essex Institute, 1884년 설립)와 합병하면서 피바디에섹스미술관(Peabody Essex Museum)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15 이 발굴기록은 1879년 도쿄대학에 의해 『오오모리 조개무지(Shell Mounds of Omori)』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16 이들 수집가들의 연관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Jane Portal, "The Story of Korean Art," *MFA Highlights: Arts of Korea*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12), pp. 11-20 참조.



련된 인물도 있었다. 한국 최초의 대미 외교사절단인 보빙사의 통역관이자 수행원이었던 로웰과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보빙사의 일원이었던 유길준(1856-1914)이 미국에 남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도 모스다.<sup>17</sup>

모스가 일본에 체류하며 수집한 7,800여 점의 토기 및 토기 파편을 보스턴미술관이 구입한 해는 1892년이다. 모금을 통해 마련한 7만 6천달러에 일괄 구매했다. 이와 함께 보스턴미술관은 모스를 일본 토기 관리자(Keepers of Japanese Pottery)로 임명하고 소장하게 된 일본 토기 소장품을 조사, 분류, 등록하는 작업을 맡기는데 그 결과물이 1901년 출간된 『일본 토기 도록(Catalogue of Japanese Pottery)』이다. 총 384 페이지에 달하는 이 도록에서 모스는 112점



도 3. 모스가 수집한 한국의 고대 및 근대 토기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의 토기를 한국 토기로 분류해 약 9페이지에 걸쳐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라비어 사진 및 자신이 직접 그린 선묘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sup>도 3</sup>. 대략적이거나 제작방법, 용도, 시대 별로 나눈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 사진 및 선묘로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총 87점이다. 사진 및 선묘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25점은 모스등록번호 1~4, 36~44, 85~8, 90~2, 94~6, 102, 107에 해당되는데, 이 중 1번부터 4번에 대해서는 외관을 관찰한 기록이 있어 실사 결과 3번 토기는 목항아리와 그릇받침(92.2959a-b), 4번 토기는 그릇받침(92.296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8</sup>

17 유길준은 1883년부터 1885년까지 당시 피바디과학학교(현 피바디에섹스미술관) 관장이었던 모스와 함께 지냈다. 모스를 도와 피바디과학학교가 소장하고 있던 한국미술품에 관해 연구했으며 귀국하게 되면서 자신의 옷가지 및 개인용품들을 기증해 피바디에섹스미술관 한국미술소장품 기반을 세운다. 이들 한국미술소장품들은 1994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대여해 한국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 한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국외미술관 소장 한국미술품 전시였다. 피바디에섹스미술관 한국실(유길준실)은 2003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선일보사 및 유길준의 손자 유병덕의 후원을 받아 새롭게 단장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8 모스 도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25점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 대조했으나 모스 번호 42와 44번은 여전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밖에 모스 도록 선묘 8번 토기의 보관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모스의 한국 토기 수집경로는 다섯 가지로 서술되어 있다. 모스 자신이 일본의 아마토(현 나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고대 토기 및 파편을 수집하거나, 동료 생물학자 피에르 루이스 주이(Pierre Louis Jouy, 1856-1894)<sup>19</sup>가 소장하고 있던 한반도 출토 토기의 일부를 구입하거나, 제물포(현 인천) 근교 묘지에서 발견된 것을 제 3자를 통해 구입하거나, 미 해군 장교가 한국의 한 관리로부터 구입해 소장하고 있던 송도(개성) 출토 청자를 구입하거나<sup>20</sup>, 시그프리트 빙(Sigfried Bing, 1838-1905)<sup>21</sup> 등 유럽 판매상을 통해 구입했다. 흥미롭다면, 모스가 한국 고대 유물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일본 외교통을 이용해 한국 고위 관리와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해당 관리들의 관심 및 인식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다소 불만스런 어조로 기록하고 있다.<sup>22</sup>

보스틴미술관에서 처음으로 한국미술품으로 등록된 유물은 시카고 의사 존 베이커(John W. Baker, 1851-1906)가 1892년 모스 소장품으로 기증한 접시 2점이다. 이 두 접시(92.2826 및 92.2827)는 1901년 출간된 모스 도록에 각각 번호 69 및 70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모스가 직접 수집한 작품은 아니어서 소장 경로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다. 등록카드는 17세기를 제작 연대로, 제물포(인천)를 출처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항구가 1882년 임오군란 후 여러 나라의 영사관과 외국인 무역중개상이 출입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선적지 또는 구입한 장소를 출처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sup>23</sup>

이 외에 모스가 수집하지는 않았으나 모스 수집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그 출처가 확실히 밝혀져

19 주이는 1881년부터 1886년 사이에 한국 및 일본, 중국을 드나들며 표본 채집 활동을 한 생물학자로 한반도에 서식하는 조류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그가 채집한 표본의 대부분은 현재 소미스소니언 자연과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주이는 자신의 한국 토기 수집품에 대해 “한 젊은이가 가끔 대구, 울산, 동래 등지의 묘지에서 발견된 것을 가져와” 소장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Pierre Louis Jouy, “The Collection of Mortuary Pottery,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Annual Report of the U.S. National Museum* (Washington D.C.: US National Museum, 1890), p. 591.

20 보스틴미술관 유물번호 92.2996~3007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에 대한 모스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과거 송도(개성) 왕궁 터에서 지주에 의해 발견; 지주의 후손이 한 관리에게 판매; 1885년 미해군장교에게 판매; 1889년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에게 판매.” Edward Sylvester Morse, *The Catalogue of Japanese Pottery*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1891), p. 29.

21 사무엘 빙으로 보다 잘 알려져 있는 유럽의 동양미술품 판매상이다. 특히 미국인 고객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일본 판화 소장품은 1894년 보스틴미술관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Kojiro Tomita, *A History of the Asiatic Department: A Series of Illustrated Lectures Given in 1957 by Kojiro Tomita* (1890-1976)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90), p. 29 및 53; Walter Muir Whitehill, *Museum of Fine Arts, Boston: A Centennial History I*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P, 1970), p. 107.

22 모스는 1917년 출간된 그의 일본 여행 기록 『Japan Day by Day』에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그가 접촉했다는 고위 관리는 임오군란 실패 후 일본에 피신 중이던 윤웅렬(1840-1911)과 당시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그의 장남 윤치호(1865-1946)임이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Edward Sylvester Morse, *Japan Day by Day, 1877, 1878-79, 1882-83, Vol. 1*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17), pp. 327-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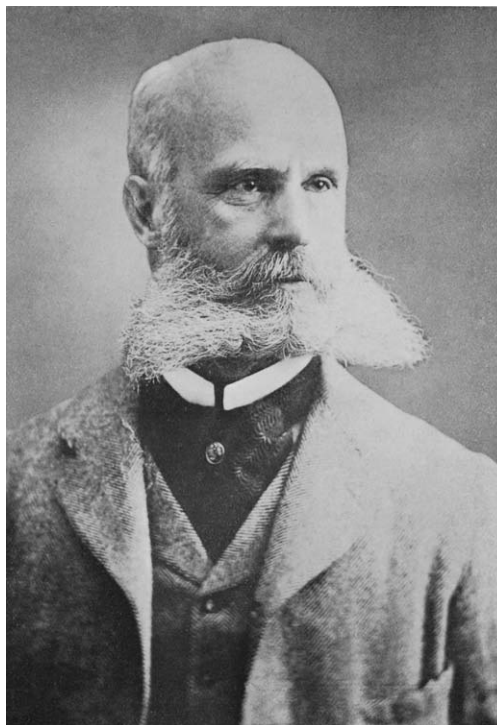
23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중 상당수가 제물포를 출토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있는 도자기는 퍼시발 로렌스 로웰(Percival Lawrence Lowell, 1855-1916)이 1901년 기증한 청자상감 사발(01.8151)이다. 고종이 하사한 것이라 기록되어 있고 질은 갈색조에 유약이 부풀어 오르거나 터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이 외에 모스번호 82로 등록된 백자 항아리 1점(98.90)은 루시 엘리스(Lucy Ellis) 기증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소장자나 출처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모스 도록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도록이 출간된 이후인 1903년에서야 유물로 등록된 예가 총 16건 발견되는 것도 특기 사항이다.<sup>24</sup>

## 2) 윌리엄 스티지스 비겔로/덴만 왈도 로스 수장품

윌리엄 스티지스 비겔로(William Sturgis Bigelow, 1850-1926)는 무려 4만 3천여 점의 미술작품을 보스턴미술관에 기증한 인물이다<sup>도 4</sup>. 이 중 30점이 한국미술품인데 여기서 17점은 도자류로 1899년에 덴만 왈도 로스(Denman Waldo Ross, 1853-1935)와 공동명의로 기증했다. 세계에 8점 밖에 없는 고려시대 경전함 중 하나인 <나전국당 초문경함>(11.10556), 표현의 우수함과 보존 상태가 뛰어난 14세기 고려 불화 <원각경변상도>(11.6142), 독특한 도상의 조선 초기 <삼장보살도>(19.40), 안견 풍 <산수화>(11.6174), 최근 이암(1507-1566) 작이라 판명된 <가응도>(11.6164)가 대표적 기증품이다.

출처에 관해서는 특별히 기록된 바가 없으나 일본 체류 당시 정부 차원의 원조가 끊겨 극도로 궁핍했던 일본의 사찰들을 돌며 수집하거나 몰락한 무사들이 헐값에 내놓은 물건 등을 구입해 소장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기록이 다수 있다.<sup>25</sup> 대부분이 애초 중국미술품으로 유입되었다는 특징



도 4. 윌리엄 스티지스 비겔로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sup>24</sup> 모스 도록 5, 6, 9, 10, 11, 47, 48, 49, 50a, 50b, 52, 53, 79, 81, 101, 51이며 각각 보스턴미술관 유물번호 03.1915, 03.1916, 03.1918, 03.1919, 03.1920, 03.1923, 03.1924, 03.1925, 03.1926, 03.1927, 03.1928, 03.1929, 03.1930a-b, 03.1931, 03.1932, 03.1953에 해당된다. 이 밖에 모스 도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물 두 점(03.1909 및 03.1910)도 1903년 모스 토기 컬렉션으로 등록되어 있다.

<sup>25</sup> Walter Muir Whitehill, 앞의 책(1970), pp. 105, 113-4; Kojiro Tomita, 앞의 책(1990), pp. 17-28.

도 있다. <원각경변상도>의 경우 1961년까지만 해도 송 말기에서 원 초기 작품으로 간주되었으며,<sup>26</sup> <지장보살도>(11.6139)는 애초 원나라 작품으로 등록되었고, <가응도>는 2008년 신시내티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에서만도 중국미술품으로 소개되었다.

비겔로는 부친 및 조부가 모두 하바드 의대 출신인 의사 집안 태생으로 비겔로 역시 하바드 의대(1871)를 졸업했다. 1874년 파리로 건너가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1895) 밑에서 수학하던 중, 당시 파리 화가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던 일본산 도자기, 판화, 칠기, 검, 네스케(根付) 등에 매료되면서 동양미술 수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본격적인 일본미술품 수집은 모스 및 페놀로사와 함께 일본에 건너 간 1882년부터 시작한다. 당시 18세였던 오카쿠라와 인연을 맺은 때도 바로 이 해다. 모스와의 인연은 로웰 인스티튜트(Lowell Institute)<sup>27</sup>에서 진행한 모스의 일본학 강의를 들으며 시작하며 그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 간 이후로는 7년 동안 줄곧 일본에 머물면서 모스를 비롯하여 페놀로사, 오카쿠라, 웰드와 함께 일본 사찰 및 유적지를 부지런히 돌며 수작이라 생각되는 미술품은 손에 잡히는 대로 수집했다.<sup>28</sup> 이 기간에 그가 수집한 미술품의 규모는 웬만한 미술관의 전체 소장품 수보다 많다. 비겔로가 기증에 앞서 대략한 1,000여 점의 일본공예품을 수장하기 위해 미술관을 넓힐 방안을 모색할 정도였고, 1911년 한 해에만 무려 2만 6천여 점의 일본 및 중국 미술품을 기증했으며, 보스턴미술관 소장 중국 및 일본 회화 5000여 점 중 절반 이상이 비겔로가 소장했던 것이다. 보스턴 미술관과의 인연은 1889년 미국으로 돌아와 1891년 작고한 부친의 뒤를 이어 하바드대학 운영이사회 이사직을 맡으면서 시작되어 1926년 작고하기까지 계속되었다. 유지에 따라 그의 시신은 불교식으로 화장되었으며 일부는 보스턴에, 나머지는 일본 미이데라(三井寺) 사찰에 페놀로사의 유골과 함께 안치되었다.

로스는 보스턴미술관이 설립될 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던 마티어스 덴만 로스(Mathias Denman Ross, 1819-1892)의 조카다<sup>도5</sup>. 신시내티에서 출생했으나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서 성장했다. 하바드대학에서 정치경제학(1880 졸업)을 공부했지만 전공과는 무관하게 1889년부터 1909년까지 동대학에서 디자인이론을 강의했으며, 1895년부터 1934년까지 40년간 보스턴미술관 운영이사회에서 일하며 평생 수집한 그의 소장품 1만 2천여 점을 모두 기증했다. 로스는 하바드대학 포그미술관에도 2,500여 점의 소장품을 기증했는데, 19세기 동양미술 수집가들이 갖추지 못했던 뛰어난 식견과 심미안의 소유자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정선된 작품만을 골라 수집한 진정한 의미의 미술품 수집가로 평가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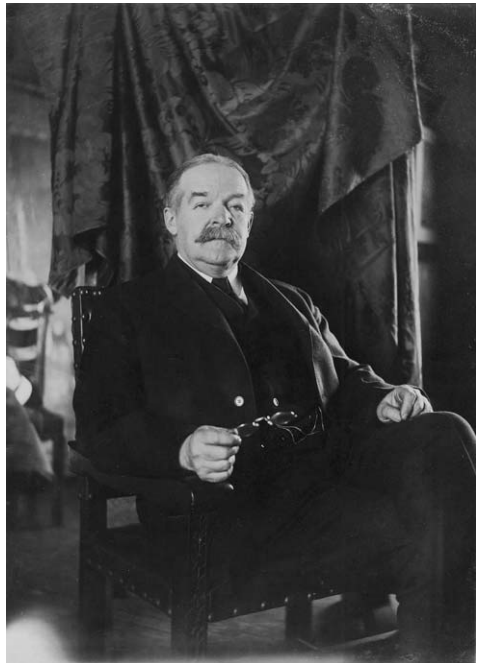
26 Kojiro Tomita and Hsien-Chi Tseng, *Portfolio of Chinese Paintings in the Museum (Yuan to Ch'ing Periods): A Descriptive Text*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61), p. 2.

27 1836년 존 로웰 주니어(John Lowell Jr., 1799-1836)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교육재단이다. 현재는 매사추세츠 노스이스턴대학(Northeastern University) 공과대학에 속해 있다.

2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ojiro Tomita, 앞의 책(1990), pp. 17-28 참조.

고 있다. 보스턴미술관 동양미술소장품의 영역을 인도 및 극동아시아 미술까지 확장하고 향후 보스턴미술관 인도미술을 이끈 아난다 켄티쉬 쿠마라스와미(Ananda Kentish Coomaraswamy, 1877-1947)를 인도미술 큐레이터로 영입해 미국에서는 최초로 인도미술부서(1917)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또 비젤로, 웰드 및 보스턴미술관 초대 관장인 찰스 그릴리 로링(Charles Greely Loring, 1828-1902) 등과 함께 모스 토기의 구입기금을 마련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무려 150명이 넘는 이들을 참여시키는 기록을 남겼다.

현재 덴만 왈도 로스 수장품으로 등록된 한국미술품은 22점인데 비젤로와 공동명의로 기증한 17점의 도자기를 합하면 총 39점을 기증한 셈이다. 출처에 대해 특기된 바는 없으나 미술품 구입을 위해 자주 유럽 및 아시아를 여행한 사실로 미루어 현지 미술상이나 경매를 통해 소장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기증품의 면면을 보면 불화 5점, 초상화 2점, 도자기 6점, 도구 및 금속, 장신구류 8점 및 칠기 1점으로 종류가 다양한 가운데 젓가락세트, 밥그릇, 동경, 등자(鎧子), 화로, 빗집 등 민속품 범주에 드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다른 수집가와 다르며 1890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쳐 조금씩 꾸준히 나누어 대여·기증한 특색이 있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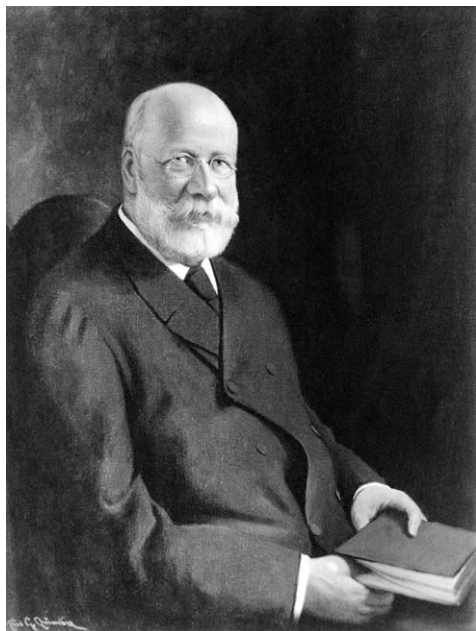
도 5. 덴만 왈도 로스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 3) 페놀로사·웰드 수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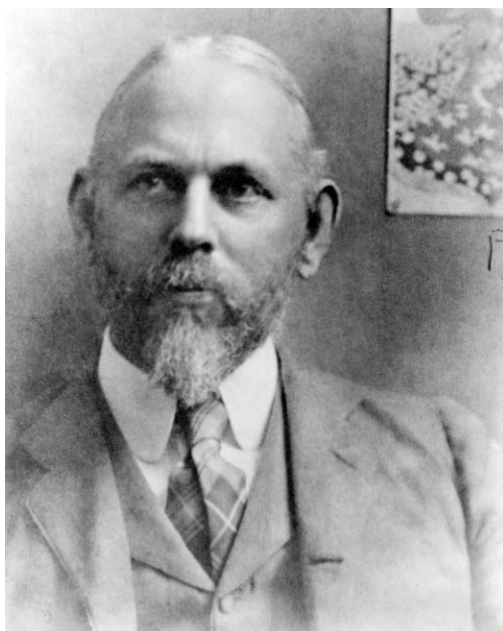
찰스 고다드 웰드(Charles Goddard Weld, 1857-1911)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소장품 2만여 점을 보스턴미술관에 유증함으로써 형성된 소장품이다<sup>도6</sup>. 이들 기증품의 중심에는 어네스트 프란시스코 페놀로사(Ernest Francisco Fenollosa, 1853-1908)로부터 구입한 775점의 회화작품이 있다<sup>도7</sup>. 페놀로사는 이들 회화를 (비젤로의 권고에 따라) 보스턴미술관에 두는 것을 전제로 웰드에게 넘겼다.<sup>30</sup> 웰드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으나(1879) 가업을 관리해야 했던 탓에 곧 의사 생활을 접고

<sup>29</sup> 등록번호 17.86, 17.87, 17.181, 17.182, 17.827, 17.828.1-2; 17.829.1-2; 17.830.1-2, 17.832, 17.885, 17.886, 17.888, 17.967, 17.968, 17.991, 17.1142, 17.1276, 19.763, 20.1614, 22.408, 25.188, 25.518이 해당.

<sup>30</sup> Kojiro Tomita, 앞의 책(1990), p. 17.



도 6. 찰스 고다드 웰드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도 7. 어네스트 프란시스코 페놀로사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생활한다. 일본미술품 수집은 1886년 일본에 도착하면서 자신 소유의 배에 불이나 한동안 발이 묶이는 바람에 그 곳에 체류 중이던 모스, 페놀로사, 비겔로, 오카쿠라와 어울리게 되면서 시작됐으며 주로 무기류를 수집했다. 페놀로사로부터 구매한 회화 중 한국미술품으로 등록된 작품은 총 21점이며, 이 외 중요한 웰드 수집품으로는 고려시대 사리구(39.591a-f)가 있다.<sup>31</sup>

페놀로사는 모스와 마찬가지로 매사추세츠 세일럼 출신으로 하바드대학(1874 졸업)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다. 스페인계 피아니스트의 아들이자 음악, 시, 그림에 관심이 많아 보스턴미술관 미술학자가 개교하자 그 곳에서 1년간 미술을 공부하기도 했다. 모스의 권고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대학에서 철학 및 정치경제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일본 문화와 미술에 심취하게 되며 불교로 개종해 테이신이라는 법명도 얻는 등, 일본 문화에 동화된 삶을 살았다.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회화 작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것과는 별개로 비겔로 및 오카쿠라와 함께 일본의 전통회화의 부흥을 위해 힘을 쏟으며 도쿄미술대학의 설립에 기여했으며, 사찰과 사원의 보물을 보호하는 법령문 및 국보 목록을 만드는데 참가했는가 하면 도쿄국립박물관의 전신인 동경제국박물관의 설립에도 기여한 인물로, 그 공을 인정 받

<sup>31</sup> 이 사리구는 도미타 고지로가 동양미술부장으로 있던 1939년 야마나카상회로부터 웰드 소장품 총 241점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구입했다. 교환 품목은 복제 및 모사본 일본 회화 38점, 153점의 일본 검, 담배갑을 비롯한 금속장식류 50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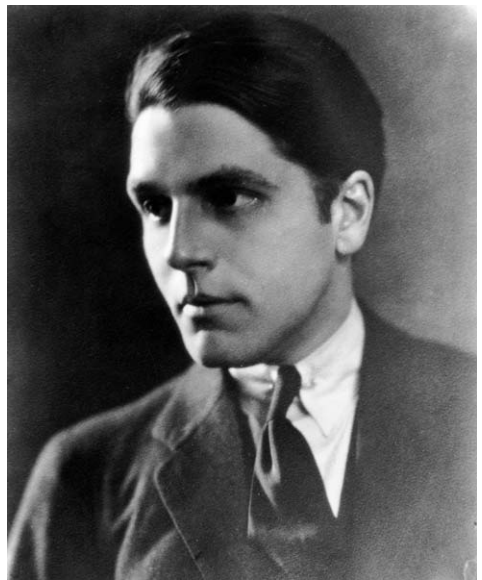
아 메이지황제로부터 훈장도 받았다.<sup>32</sup>

또, 모스와 비겔로의 권고로 1889년부터 보스턴미술관에서 근무하며 일본미술 부서 설립에 기여했고 그 부서 첫 큐레이터로서 일본 판화 및 회화의 전시는 물론 보스턴미술관 최초로 교토 다이도쿠지(大徳寺) 소장 중국 불화를 대여해 전시했다. 1895년 보스턴미술관을 떠난 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양미술수집가 중의 하나인 찰스 랭 프리어(Charles Lang Freer, 1854-1919)와 일하며 그의 소장품 형성에 이바지했다. 1897년에는 일본에서 영문학을 강의했고, 1900년에는 미국에서 아시아에 관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했다. 런던에서 작고했으며 그의 시신은 화장되어 비겔로와 함께 일본 미이데라 사찰에 묻혔다. 그의 묘지 비석은 도쿄미술대학의 후원금으로 세워졌으며 그의 시신을 런던에서 일본으로 옮긴 인물은 당시 런던에 지사를 두고 활동해온 동양미술품 판매상점 아마나카상회의 사장 아마나카 사다지로였다.

페놀로사가 기증한 한국 회화 작품에는 중국미술로 등록됐던 〈치성광여래도〉(11.4001), 작자미상의 〈화조화〉 족자 세트(11.4013, 11.4014), 분세이(文淸, 15세기 중엽 일본에서 활동한 한국 화가) 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수화〉(11.4015), 송도(개성)를 출처로 기록한 〈도교신상화〉 16점(11.4016~31), 작자미상 〈인물화〉(11.4079)가 있다.<sup>33</sup>

#### 4) 찰스 베인 호잇 수장품

찰스 베인 호잇(Charles Bain Hoyt, 1889-1949)이 1950년 1만 5천여 점에 달하는 자신의 소장품을 유증함으로써 형성되었다<sup>도 8</sup>. 호잇은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소장품과 관련해 가장 기여도가 큰 인물로, 유증한 242점을 비롯해 다양한 기증, 기금 및 복합 기금을 통해 그가 증여하게 된 한국미술품 수는 총 306점(표 6)으로 집계된다.<sup>34</sup> 이는 그의 친구이



도 8.  
찰스 베인 호잇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32 자세한 내용은 Walter Muir Whitehill, 앞의 책(1970), pp. 105-14 참조.

33 도교 신상화는 모사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분류 시기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34 유증한 242점을 살펴보면 시대별로 고려 149점, 조선 70점, 통일신라 10점, 삼국시대 8점, 기타 미정 5점이며, 종류별로는 도자류가 182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금속류(은제 장신구, 식기, 동경 포함) 46점, 회화(불화) 8점, 보석 및 장신구 3점, 칠기 3점 순이다.

표 6. 찰스 베인 호이트 기증품 내역

기증 및 기금명	수량
Bequest of Charles Bain Hoyt-Charles Bain Hoyt Collection(유증)	242
Charles Bain Hoyt Fund and Museum purchase with funds donated anonymously(기금)	35
Charles Bain Hoyt Fund(기금)	16
Anonymous gift-Charles Bain Hoyt Collection(복합 기증)	6
Gift of Charles Bain Hoyt-Charles Bain Hoyt Collection(기증)	2
Charles Bain Hoyt Fund-Charles Bain Hoyt Collection(기금)	1
Gift of Charles Bain Hoyt(기증)	1
Gift of Rowland Burdon-Muller-Charles Bain Hoyt Collection(복합 기증)	1
Museum purchase with funds from the Charles Bain Hoyt Fund and other funds(복합 기금)	2
계	306

자 대변인, 재산관리사 역할을 해 온 로우랜드 버돈 물러(Rowland Burdon-Muller, 1891-1980)를 통해 무명으로 기증한 작품과 그의 협조로 조성된 아시아큐레이터기금을 통해 구입한 작품들은 제외한 숫자로 그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한국미술소장품은 전체 한국소장품 수의 30%가 넘는다.<sup>35</sup>

호이트는 미국 위스콘신(Wisconsin)주 케노샤(Kenosha)에서 출생했다. 동전수집가 겸 학자였던 숙부 에드워드 테오도르 느웰(Edward Theodore Newell)과 역시 학자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숙모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조개껍데기 등을 수집했다고 하며 십대에 이미 판화 및 예칭을 수집하고 있었다고 한다. 동양미술에 대한 관심은 1909년, 군인이었던 부친 제임스 호이트(Col. James Hoyt)를 따라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1910년 중국 고대 토기 수집을 시작으로 향후 40년간 중국 및 한국도자(1912-1920년 사이)를 집중적으로 수집했는데 특히 단순한 형태와 은은한 장식을 가진 작품을 선호했다고 한다.<sup>36</sup>

호이트의 모친은 마차 제작사인 베인웨곤컴퍼니(Bain Wagon Company)를 운영했던 에드워드 베인(Edward Bain, 1823-1898)의 둘째 딸 캐리 베인(Carrie M. Bain)이다. 호이트가 젊은 나이에 평생 미혼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세계를 돌며 수집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친의 재력과 물려 받은 재산 덕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큰 돈을 손에 쥐고 미술사적 또는 미학적으로 탁월한 예를 골라 수집

35 아시아큐레이터기금은 1941년 당시 아시아미술 큐레이터였던 도미타 고지로의 제안에 의해 조성된 아시아미술품 구입 기금으로 처음으로 기금을 쾌척한 사람이 호이트이다. 1968년 테오도르 프란시스 그린(Theodore Francis Green, 1867-1966)으로부터 일괄구입한 고구려 기와 탁본 68점(68,434.1~68)이 이 기금 구입품이다.

36 Kojiro Tomita, "Introduction," *Hoyt Collection*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52).



하는 경향을 보이는 미국의 대부분 수집가와는 달리 철저하게 자신의 미적 기준에 맞는 미술품만을 골라 수집하는 특성이 있었다 한다.<sup>37</sup>

보스턴미술관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0년 매사추세츠 캠프리지로 이주해 보스턴미술관 아시아 미술부 시찰위원회(Visiting Committees)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터다. 이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 또는 대여해 오다 1949년 작고하며 자신의 소장품 1,500여 점을 모두 보스턴미술관에 유증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보스턴미술관에서는 1952년 한국미술품 130여 점을 포함해 800여 점에 달하는 그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호잇은 보스턴미술관과 하버드대학 포그미술관(Fogg Art Museum) 외 장소에서 자신의 소장품이 전시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조차 그의 소장품을 전시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겼다.

호잇이 보스턴미술관에 처음 기증한 한국미술품은 염주합으로 추정되는 <화형칠기합>(34.69a-b)이다. 중국 명나라 선덕제위(1426-1435) 명문이 있는 <칠기합>(34.97a-b)과 함께 애초 15세기 중국미술품으로 등록된 기록만이 있을 뿐 출처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언제 이 합이 한국 것으로 수정됐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발견한 바 없다. 도자기의 경우 일찍부터 유럽을 다니며 고려청자를 수집해 온 것으로 잘 알려진 라이터로부터 구매한 예가 있으며 세계 각지를 다니며 그 곳 고미술시장에 나온 미술품을 대상으로 수집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호잇은 또 스위스 루체른(Luzern)에 있는 자신의 저택을 보스턴미술관에 증여했는데 이 17세기 성곽은 1959년 8만 6,238 달러에 매각되어 아시아미술품 구입기금으로 사용되어 왔다.

### 3. 주요 기금 구입품

#### 1) 오카쿠라 가쿠조 구입품

오카쿠라 가쿠조(岡倉覺三, 1862-1913)<sup>38</sup>는 일본 요코하마 출신으로 초등학교 시절 미국 선교사로 부터 배운 영어 실력이나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전공한 덕으로 페놀로사의 통역 및 번역자로 일하게 되면서 모스, 비겔로 등과 어울리게 된다.<sup>39</sup> 27세에 이미 도쿄미술관(현 도쿄국립박물관) 큐레이터,

37 Walter Muir Whitehill, 앞의 책(1970), pp. 532-4.

38 한국에서는 오카쿠라 텐신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나 필자가 참고한 기록 및 문서, 문헌 등에는 대부분 Okakura Kakuzo로 기록되어 있는 연유로 본고에서는 오카쿠라 카쿠조를 사용했다.

39 1904년부터 1913년까지 보스턴미술관에서 일하며 여러 모임을 통해 보스턴 지식층에게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사상을 전한 기록이 보인다. 대표적 저서로는 *The Ideals of the East* 및 *The Book of Tea*가 있다. 상세 내용은 Walter Muir Whitehill, 앞의 책(1970), pp. 126-34 및 Anne Nishimura Morse, "Japanese Art: Evolving Definitions in MFA Highlights Arts of Japan," *MFA Highlights: Arts of Japan*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08), pp. 13-25 참조.



도 9. 오키쿠라 가쿠조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이듬해에는 도쿄미술대학(현 도쿄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할 정도로 당시 일본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보스턴미술관과의 인연은 1904년 비젤로의 초청으로 보스턴에 와 동양미술 어드바이저로 일하며 시작한다. “아시아는 하나(Asia is one)”라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1906년과 1911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과 일본을 여행하면서 수집활동을 펼쳐 동양미술, 특히 중국 및 인도 미술 소장품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미술품 보존에도 큰 관심을 보여 1906년에는 소장품의 보수 및 보존 처리를 위해 일본인 칠기공예 전문가, 금속공예 전문가, 표구 전문가를 보스턴미술관으로 초빙해 오기도 했다.

오키쿠라가 한국미술품과 관련해 기여한 바는 한국미술소장품의 정수라 할 만한 통일신라시대

〈금동약사여래상〉(32.436)을 1908년 일본에서 구입한 일이다. 일본 나라시대(710~794)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일본으로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sup>40</sup> 이 금동상은 1921년까지 오키쿠라 소유로 있다 에드워드 잭슨 홈즈(Edward Jackson Holmes, 1873~1950)에게 증여되었으며 이를 다시 홈즈가 1932년 보스턴미술관에 기증함으로써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이 되었다.<sup>41</sup> 이 금동상 외에 오키쿠라가 구입한 한국미술품은 중국에서 구입한 동정 8점(12.1062~9)이 있다.

## 2) 랭던 워너 구입품

랭던 워너(Langdon Warner, 1881~1955)는 하버드대학 출신(1903 졸업)으로 1년간 일본에서 오키쿠라 가쿠조와 함께 수학하게 되면서 보스턴미술관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다. 보스턴미술관에서는 1908년부터 1913년까지 근무했다. 오키쿠라의 어시스턴트로 시작해 1909년 어시스턴트 큐레이터가 되었으며 1910년부터 1913년까지 당시 중국 및 일본미술부서 큐레이터였던 오키쿠라와 함께 중국, 일본, 한국을 돌며 수집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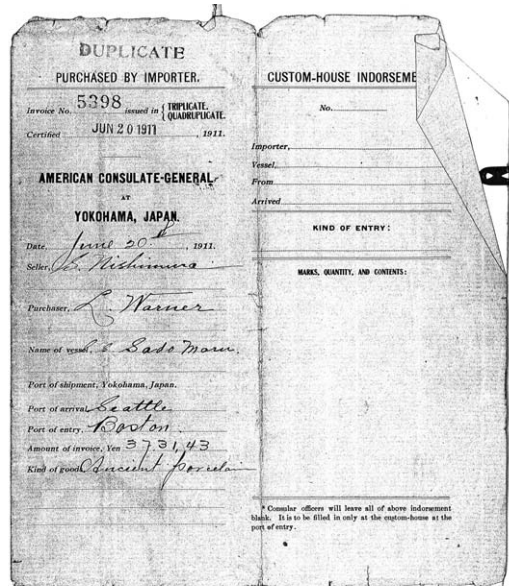
40 Kojiro Tomita, “A Korean Statue of the Healing Buddha, Eighth Century,” *Bulletin of Museum of Fine Arts* 31-185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June 1933), p. 38.

41 에드워드 잭슨 홈즈는 동양미술부서 시찰위원회(Visiting Committee) 초대 회장이었다.

워너가 수집한 도자기는 총 80점인데 한국 무덤 출토로 출처를 기록하고 있는 41점의 청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17점은 한국에서 구입한 것이며 나머지 24점은 일본에서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42</sup> 당시 고려청자가 일본에 많이 유입되어 있었음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며 일본 구입 청자 중 4점이, 한국 구입 청자 중 12점이 후에 중국산으로 추정·판명된 사실로 미루어 중국 도자기가 한반도에 많이 유입되어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음도 확인된다.

워너는 이들 41점의 청자를 총액 2,351엔으로 구입했다. 이 중 한국 출토 중국 도자로 판명됐거나 추정되는 16점을 제외한 25점의 구매가격은 총 1,681엔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당시 시가로 약 840달러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한 것은 〈청자화형잔탁〉(11.1826)으로 8엔, 가장 고가품은 〈청자죽문병〉(11.1819)으로 350엔에 구입했다. 이 밖에 50엔을 주고 일본에서 구입한 〈청자유개잔〉(11.1817a-b)은 유색 및 형태가 고려 인종 무덤에서 출토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개잔과 거의 똑같아 눈길을 끈다.<sup>43</sup> 또한 〈죽문병〉과 〈유개잔〉 등에는 일본 도자기 수리법인 긴즈키(金継ぎ)로 수리한 흔적이 있다. 워너의 청자들은 소위 비색(翡色)과 상감기법이 완성되는 12세기 전반부터 질적으로 급격하게 쇠퇴하는 시기인 14세기 전반 청자를 포함하고 있고, 문양도 무문, 양각, 음각, 상감 등을 고루 보여주고 있어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들 청자들의 대부분은 1914년 보스턴미술관에서 전시된 바 있다.

국제화물 송장과 요코하마주재 미국 총영사관 세관 기록에 의하면, 이들 80점 도자기는 3개의 상자에 나누어져 1911년 6월 20일 요코하마 항에서 소다마루(Soda Maru)라는 상선에 실려 출발했고 미국 시애틀에 입항해 7월 19일 보스턴 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44</sup> 판매자는 'S'로 시작하는 이름에 니시무라(西村, Nishimura)라는 성을 가진 자로 당시 교토(京都) 및 도쿄(東京)에서 견직



도 10. 랜던 워너 구입품에 대한 요코하마주재 미국총영사관 세관 기록(부분),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42 유물번호 11.1812a-b~14, 11.1816~23, 11.1825a-b~35, 11.1838~9, 11.1848이 이에 해당된다.

43 등록카드에 의하면 이 유개잔의 출처는 영문으로 "Said to be from tomb of Jinso"라 명기되어 있다. 번역하면 "진소 무덤 출토라 전해지고 있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진소"는 지역명 또는 인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44 소다마루는 당대 일본 최대의 상선 회사인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会社, Nippon Yusen Kaisha) 소유 선박 중 하나이다.

물 등을 황실에 납품하던 지소(千總) 상점 주인이자 당대 유명한 고미술수집가였던 소자에몬(總左衛門)으로 판단된다.<sup>45</sup> 소자에몬은 9세기에 교토에 정착해 1604년부터 주로 황실, 사찰, 귀족들에게 고급염색견직물 등을 공급해 온 니시무라 가문 12대 손으로 당대 유명한 동양미술품 수집가 중의 한사람이었다. 1876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를 비롯 파리, 시카고,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일본미술품을 알린 공을 인정받아 황실로부터 훈장도 여러 차례 수여받았다. 그러나 워너가 실제로 이들 청자를 니시무라로부터 구입했는 지를 밝히려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당시 활발했던 니시무라의 국제무역 창구만을 단순히 이용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3) 야마나카상회 거래품

야마나카상회는 일본인 야마나카 사다지로(山中定次郎, 1866-1936)가 운영했던 동양고미술품 판매 회사로 1895년 뉴욕의 작은 미술품 상점에서 시작해 보스턴(1899), 시카고, 런던, 파리, 베이징(1917) 등에 지사를 두고 운영될 만큼 빠르게 성장했으나 1944년 세계 2차대전으로 미국 상점들은 물론 지사의 재산까지 모두 동결, 몰수, 경매됨으로써 쇠했다.<sup>46</sup> 모스, 비젤로, 페넬로사 및 오카쿠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5만엔 상당의 일본미술품을 들고 뉴욕에 첫발을 들여놓은지 1년도 안 되어 미국의 헨리 오스본 헤브메이어(Henry Osborne Havemeyer, 1847-1907)와 찰스 랭 프리어(Charles Lang Freer, 1854-1919),<sup>47</sup> 영국의 조지 유모포폴로스(George Eumorfopoulos, 1863-1939) 등 당대 유명 동양미

45 Nishizawa Iwata, "Japan in the Taisho Era. In commemoration of the enthronement (1917)," U of California, California Digital Library, <<http://archive.org/details/japanintaishoera00nishrich>>, 4 Aug 2012, p. 135.

46 몰락 배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朽木ゆり子, 『ハウス・オブ・ヤマナカ―東洋の至宝を欧米に売った美術商』(東京: 新潮社, 2011).

47 프리어의 동양미술 소장품은 모두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가 소장하고 있으며 유모포폴로스의 동양미술 소장품 대부분은 브리티시미술관 및 빅토리아앤앨버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프리어는 1896년 처음으로 한국자기를 구입해 1907년까지 총 50점을 수집했는데 이 중 고려청자는 8점 밖에 되지 않았다. 그가 고려청자 36점을 야마나카상회로부터 구입한 해는 1909년으로, 이 해에 그는 호러스 뉴튼 앨런(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이 1884년부터 1905년까지 21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소장하게 된 82점의 청자도 구입했다. 앨런은 이들 고려청자의 소장경로에 대해 "궁에서 하사받거나 혁명과 도굴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 수집하게 됐다"고 서술하고 있어 흥미롭다. "On the occasion of my having saved the life of the prince as mentioned in another chapter my services were rewarded by the presentation of a small piece of this ware...when the handsome lacquered box was taken from its silken wrappings and found to contain a little gray bowl...I could be made to realize that this was the most highly prized article the Korean Court could present me...what seemed to me to be quite ordinary chinaware...later, on becoming acquainted with this ancient product of Korea's palmy days, I succeeded in picking up quite a collection of it, usually as the result of the disordered times following revolutions and lootings." Horace Newton Allen, *Things Korean: 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New York; Chicago; Toronto; London and Edinburgh: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pp. 210-2, openlibrary.org. <<http://archive.org/details/thingskoreanaco00allegoog>>, 12 Apr 2013.

술 애호가 및 수집가들을 고객으로 두었다.<sup>48</sup>

이 회사의 소유주 야마나카 사다지로(山崎 貞次)는 오사카 근교 사카이(堺) 지역에서 골동품을 취급하던 고미술상 아다치 신고로(安達信五郎)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878년 역시 오사카의 유명한 고미술상이었던 야마나카 기치베이(山中吉兵衛)의 가게로 보내져 사환생활을 하다 그 집안 장녀와 결혼하게 되면서 야마나카로 성을 바꾸고 그 집안의 후계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로 공예품을 취급했고 당시로서는 독특한 판매방식(각 물품에 대한 해설과 사진을 넣은 도록을 고객에게 먼저 보낸 후 특정일에 그 물품들을 상점에 전시하고 고객을 초대해 직접 보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19세기 말부터 반세기 동안 서구사회에서는 물론 일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영향력 있는 미술상의 하나로 군림했다.<sup>49</sup>

야마나카상회와의 거래를 통해 수집한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미술품은 총 7점이다.<sup>50</sup> 불화 2점(17.1635 및 17.1636) 프란시스 가드너 커티스 기금으로 각각 300달러 및 200달러를 주고 구입했으며,<sup>51</sup> 고려시대 <금강령>(34.190)과 <동경>(35.1745)은 53개 일본 동경과 함께 세스 스위트러 기금(Seth Kettel Sweetser Fund)으로 각각 124달러 및 700 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은제 도금 연화형 주자와 받침>(35.646.1a-d; 35.646.2)은 조지 닉슨 블랙 기금(George Nixon Black Fund) 일만 달러를 사용해 구입했는데 개성 근처 무덤에서 발견된 후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미술관에 판매한 것으로 그 출처를 기록하고 있다.<sup>52</sup> <라마탑형 사리구>는 교환 형식으로 구입했으며 (주 31 참조), <은제 장도집>(39.607)은 기증받았다.

#### 4) 동양미술 시찰위원회 및 기타 기금 수집품

시찰위원회(Visiting Committee)는 동양미술부 큐레이터들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1906년 결성된 후원조직이다. 시찰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은 미술품 수집활동을 해온 사람들로 수시로 자신들의 수집품을 대여·기증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을 조성해 동양미술부서 소장품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

---

48 야마나카의 고객 중에는 일본인 사업가, 한국미술수집가들도 많았는데 특히 일본 도부철도(東武鐵道) 사장이자 일본 네즈미술관 설립자 중 하나인 네즈 가이치로(根津嘉一郎, 1860-1940)와는 막역한 사이였다고 전한다. 둘이 함께 금강산을 여행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Thomas Lawton, "Yamanaka Sadajiro: Advocate for Asian Art," *Oriental Art* 26-1 (January 1955), pp. 80-93.

49 자세한 내용은 Thomas Lawton, 앞의 책(1995), pp. 80-93 참조.

50 야마나카상회가 보스턴에 지사를 열 당시 보스턴에는 마츠키 분쿄(松本文恭, 1867-1940)라는 일본인 사업가가 1892년부터 고미술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시나노(信濃) 출신 상인으로 1888년 미국으로 건너가 모스의 도움으로 세일럼에서 수학했다고 한다.

51 프란시스 가드너 커티스(Francis Gardner Curtis, 1868-1915)는 1907년 중국에서 수집활동을 하던 오카쿠라를 대신해 어소시에이트 큐레이터로서 활동했으며 일본의 사찰 건축 요소를 적용해 보스턴미술관 일본불교조각실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작고하며 보스턴미술관에 25만달러의 기금을 유증했다.

52 Kojiro Tomita, "A Han Lacquer Dish and a Koryo Silver Ewer from Korea," *Asiatic Museum Bulletin*, vol. 33 (October 1935).

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다. 초대 회장은 홈즈(Edward Jackson Holmes, 1873-1950)로 오카쿠라의 중국미술품 수집활동을 전격 지원한 인물이자 그 자신이 동양미술품 수집가로 자주 파리를 다니며 수집활동을 펼쳐 보스턴미술관 중국미술품 형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미술품과 관련해 중요한 기금 중에는 1952년 조성된 키스 맥라우드기금이 있다. 이 기금은 보스턴미술관 아시아미술부 시찰위원회(Visiting Committees) 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키스 맥라우드(Keith McLeod, 1952년 사망)에 의해 조성된 아시아미술품 구입기금이다. 맥라우드는 하버드대학(1905 졸업) 출신 변호사로 1928년부터 보스턴미술관 시찰위원으로 일했으며 1952년 작고하며 조선 불화 2점을 비롯 총 7점을 유증함과 동시에 당시로서는 거액인 103만 2,000 달러를 아시아미술 구입기금으로 내놓았다.<sup>53</sup> 이 기금으로 구입한 한국미술품은 현재 총 129점으로 안 폰테인이 관장 시절 뉴욕미술상 네이던 해머(Nathan V. Hammer)를 통해 구입한 고려시대 〈은제금속함〉(63.1610), 역시 뉴욕미술상인 마유야마 준기치(巖山順吉, 1913-1999)를 통해 구입한 신라시대 〈은제허리띠〉(68.45.1-35), 파크버넷갤러리(Parke-Bernet Gallery)를 통해 구입한 〈청자투각향로〉(69.1044a-b),<sup>54</sup> 콜로라도 덴버에 거주하는 주훈 홍규(Hongkyoo Juhon)로부터 구입한 복제 〈금동관〉(68.15)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 1951년 프레데릭 라파엣 잭 기금(Frederick Lafayette Jack Fund)으로 6점, 헬렌 및 앨리스 콜번 기금(Helen & Alice Colburn Fund)으로 11점, 줄리아 브렛포드 헌팅턴 제임스 기금(Julia Bradford Huntington James Fund)으로 8점, 헬렌 쿨리지 기금(Helen S. Coolidge Fund)으로 6점, 1948년 마샬 구드 기금(Marshall H. Gould Fund)으로 1점을 구입했다. 이외에 존 파스(John R. Fox)는 통일신라시대 기와 16점을 기증했으나 그 출처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로버트 트리트 페인 주니어(Robert Treat Paine, Jr., 1866-1951)는 12점을, 프랭크 게이 매컴버(Frank Gair Macomber, 1849-1941)는 11점,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Abby Aldrich Rockefeller) 9점, 헨리 라이먼(Henry Lyman) 8점, 조지 록웰 부부(George Rockwell) 6점, 프란시스 언더힐(Francis S. Underhill) 6점, 한국인 최희순이 기부한 유강열(1920-1976)의 판화 5점(58.483~7)이 있다.

#### 4. 기타 소장품

##### 1) 보스턴미술관 도서관 기증 퍼시발 로렌스 로웰 사진

53 불화 2점(52.1515, 52.15160), 동제품 2점(52.1506, 52.1513), 금속용기 2점(1520, 1521a-b), 청자발 1점(52.1508)을 포함한다.

54 이 〈청자투각향로〉는 시카고의 조셉 라이터에서 시작해, 1967년 보스턴의 리처드 호bart(Richard B. Hobart)을 거쳐 1969년 5월 12일 뉴욕 파크버넷갤러리에서 실시된 경매(lot no. 28)에 출품된 것을 보스턴미술관이 9,000달러에 구입함으로써 소장하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자투각향로〉에 비견되나 격이 떨어지고 몇가지 면에서 차이점도 발견되어 고려시대 청자인지 밝히려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도 11.  
퍼시발 로렌스 로웰  
(Percival Lawrence Lowell, 1855-1916),  
〈고종〉, 1884, 알부민사진,  
보스턴미술관 사진도서관 기증, 2003.718,  
Photograph © [2013] Museum of Fine Arts,  
Boston



도 12.  
조지 클레이튼 포크  
(George Clayton Foulk, 1856-1893),  
〈보빙사 일행 기념 사진〉, 1883.  
퍼시발 로웰(앞줄 왼쪽 첫번째),  
유길준(뒷줄 왼쪽 세번째), 민영익(앞줄 왼쪽 세번째)

퍼시발 로렌스 로웰(Percival Lawrence Lowell, 1855-1916)이 1880년대 촬영한 경복궁 및 근교 풍경 사진 61점(2003.669~726, 2003.728~9, 2003.856)이다.<sup>55</sup> 원래 보스턴미술관 사진도서관에 기증된 것이나 2003년 도서관이 폐관되며 보스턴미술관에 귀속되었는데 19세기 말 촬영 사진의 희귀성을 감안하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다. 특히 로웰이 1883년 고종의 초청을 받아 경복궁에 체류하는 기간에 촬영한 고종의 사진은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도11. 고종의 초청은 한국 최초의 대미 외교사절단인 보빙사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안내하는 특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로웰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빙사는 일본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뉴욕 및 보스턴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사절단에는 민영익의 아래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통역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12.

55 네덜란드인 레오폴드 로웬스탐(Leopold Lowenstam, 1842-1890)이 촬영한 사진 1점(2003.682)을 포함한 숫자다. 사진 1점(2003.727)은 로웰의 책에 소개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장품에서 제외되었고 사진 1점(2003.686)은 작품명과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

로웰은 보스턴 명문 가문의 하나인 로웰가 후손으로 주로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및 한국에 관한 저술 활동을 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그의 1886년 저서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스케치(Chosŏ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A Sketch of Korea)』에서 유래하며 이 책에서 소개된 한국 정경 사진 중 19점이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임이 확인된다.<sup>56</sup> 미국에서 로웰은 아리조나 플래그스태프(Flagstaff)에 로웰천문대(Lowell Observatory)를 설립한 천문학자로 보다 더 잘 알려져 있다.

## 2) 1970년 이후 수집품

폰테인 관장이 1977년 키스 맥라우드 기금으로 일괄 구입한 선사시대 유물 110여 점과 찰스베인호 잇기금을 통해 구입한 김해 토기(2005.122), 양기훈(1843-1902)의 〈서화집〉(2000.829.1-36), 〈포도병풍〉(2009.342), 〈문자도병풍〉(2009.343), 〈책거리병풍〉(2009.3989), 〈연화도병풍〉(2009.3988), 〈화조화병풍〉(2010.754), 윤용구(1852-1939)의 〈서예병풍〉(2010.773), 이수경(1963년생)의 〈Translated Vase〉(2011.233) 등 50여 점이 있다. 기증품으로는 뉴욕의 강컬렉션이 기증한 근대 보자기 2점(2009.4385 및 2009.4386)과 강익중의 〈Happy Buddha〉(2009.5115), 서(박)경옥이 증여한 이철경의 서예 1점, 한국의류협회가 기부한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의 한복류 (1993.653a~653e-f) 5점 등이 있다.

## IV. 결론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미술품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집활동을 펼친 보스턴 기반 수장가들의 기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특징은 소장품의 출처 및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데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증품의 대부분이 출처에 관한 단서를 제공할 만한 문서나 기록이 없이 대여 형식으로 미술관으로 유입된 후 양도되는 절차를 거쳐 미술관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 기증품 중에는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품을 대표하고 있는 작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중국미술품으로서 미술관으로 유입된 특징이 있다. 당시 일본에 소재하던 많은 한국미술품이 중국미술품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인식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흥미롭다.

도자류는 호잇이 1912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일본 및 미국, 유럽을 돌며 집중적으로 수집한 물품이 대

56 로웰 집안은 직조산업에 기반을 둔 보스턴 기반 가문으로 매사추세츠 로웰 지역은 이 가문의 선조인 프란시스 캐봇 로웰(Francis Cabot Lowell, 1775-1817)에서 유래한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은 한국에서 도굴이 성행하고 그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적도굴금령(1916)이 내려진 시기여서 눈길을 끈다. 워너가 한국에서 구입해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들여온 ‘무덤 출토’ 청자의 경우, 1910-11년 당시 한국미술품 거래 창구 및 일본의 대미 무역항로를 이용해 미국으로 유입됐음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 볼 만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한편, 야마나카상회와의 거래품은 모두 7점으로 회화 2점을 제외하고는 1934년부터 1939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간은 야마나카상회가 19세기 말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 1858-1930)의 유품을 일괄 구매해 판매하던 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려 있어 흥미롭다.<sup>57</sup> 또 거래시 통상 야마나카상회라는 상호명으로 거래하는 상례를 깨고 이노우에(Inouye)라는 성을 가진 영자 K로 시작하는 이름을 병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만하다.

주제어: 보스틴미술관, 한국미술 소장품, 소장사연구, 한국미술 수장가, 찰스 베인 호잇,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투고일 2013. 9. 28. | 심사개시일 2013. 11. 4. | 게재확정일 2013. 11. 28. |

57 도미타 기사쿠는 1908년 진남포에 삼화고려소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해 일본 수출용 고려청자를 제작한 사업가이자 수집가, 교육자였다. 1911년에는 한양에 청자생산 공장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1922년에는 조선왕실용 도자 생산을 전담했던 이왕직미술연구소를 인수해 운영했다.

## Research on the Provenance of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s Korean Collection

Suhyung Chung (Kim)\*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MFA) was established in 1876 and in three decades grew into an encyclopedic museum with six departments. Its Asian art collection is considered one of the finest in the West both in scope and quality. MFA houses 1,045 objects of Korean art, and all were acquired as gifts or purchases from donated funds. By type, ceramics rank first occupying almost half of the entire Korean art collection while by period, Goryeo Dynasty's objects constitute more than one third. The first accession into the Korean art collection is a group of 112 pottery items purchased from Edward Sylvester Morse in 1892. Most of them are earthenwares of Silla and Gaya period acquired during his stay in Japan. MFA's Korean art collection contains 112 paintings (including twenty-five Buddhist paintings) donated by William Sturgis Bigelow, Francisco Ernest Fenellosa, Charles Goddard Weld, Denman Waldo Ross, Charles Bain Hoyt, and Keith McLeod, to list several important donors. Major expansion to MFA's celadon and white porcelain collections occurred in 1950 with the bequests of 242 items from the aforementioned Hoyt. His total bequests and gifts comprise almost one third of the entire Korean holdings. MFA's Korean pre-historic artifact collections were formed in 1977 with the purchase from a Korean-American collector while MFA's Korean modern to contemporary artworks including the late Joseon-period screens and contemporary ceramics were mostly acquired during the 2000's.

Key words: Museum of Fine Arts, Boston; Korean art collection, provenance research, Korean art collectors, Charles Bain Hoyt, overseas Korean cultural properties

---

\* Research Associate for Korean Art, Art of Asia, Oceania, and Africa, Museum of Fine Arts, Boston

